‘청년포교’ 이끌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

산하기관서 청년 75명 뜻 모아
지도법사 사회국장 법륜 스님
호산 스님 기금 500만원 지원
창단 예정 수미산합창단 소개도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봉선사 상월청년회원들이 청풍루 앞에서 전법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또 하나의 청년포교 결실을 맺었다. 앞서 기존 상월청년회와 상월청년합창단, 경동대 불교학생회, 광동학원 등의 청년을 모아 정기적인 청년연합법회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엔 봉선사 산하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청년회를 꾸린 것.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내 청풍루에서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법회’를 봉행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구리실버인력뱅크, 인창경로식당, 연꽃유치원에서 모인 75명의 20~30대 청년들이 주인공이다. 지도법사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봉선사 사회국장인 법륜 스님이 맡았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청년회 임원진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단주를 선물했다. 이어 청년포교가 보다 확산돼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청년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은 “일요일이나 초하루 법회를 보면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뻘 되는 분들이 95%고, 가뭄에 콩 나는 것처럼 거사님 몇 분이 전부다. 20대는 찾아볼 수 없어서 문제를 느끼고 고민해왔다”며 “앞서 입적하신 자승 큰스님의 가장 큰 유지가 대학생·청년 전법이다. 앞으로 불교의 미래인 여러분이 더 활기차게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치사를 통해 봉선사를 기점으로 전국 모든 사찰에서 청소년의 법향이 피어나길 기원했다. 스님은 “지난달 경동대 불교동아리를 창단해 활동을 시작한 것과 더불어 봉선사 상월청년회를 조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포교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를 이끌 서찬수 회장은 “불교복지 실천이 곧 자비행이고 전법이라는 걸 잊지 않으며 진심으로 이웃을 맞이해 신심으로 전법하겠다”면서 “큰 그릇에 나눔과 행복을 함께 부으며 작은 힘을 모아 큰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은 봉선사 상월청년회 임원진에게 각각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 액자를 전달하며 청년회 활동을 격려했다.

봉선사 상월청년회 창단법회에선 3월 창단 예정인 수미산합창단 소개와 단원 모집도 이뤄졌다. 수미산합창단은 현재 50세 미만 광동학원 3개교 불교학부모회와 봉선사 불교대학 입문반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준희 지도법사는 “2월까지 단원을 계속 모집해서 활동할 계획”이라며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노래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알리는 문화포교예술단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단장은 광동고 마야회 박경희 씨가 맡았다. 주지 호산 스님은 수미산합창단에도 운영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체육인전법단장을 맡고 있는 호산 스님은 최원석, 김희정, 한예슬, 조혜린 학생에게 청소년 체육인 장학금 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장학금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수여했으며, 장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지원된다.

조계종 9기 환경위원장에 화평 스님

진우 스님, 위촉장 수여·격려
화평 스님 “사찰림 관리 최선”



불교계 환경 정책을 모색하고, 사회 환경문제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조계종 9기 환경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화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 16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회의’를 갖고 신임 위원장에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임기는 2025년 6월 15일까지다.

새로 선출된 화평 스님은 “선배스님들이 지키고 가꿔온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이 유지·보존되고 후대까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며 “필요한 부분은 종단에 건의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숲가꾸기 및 재선충 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을 이유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사찰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진행,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계획도 논의했다.

종단의 친환경적 운영과 생활, 문화, 생태, 환경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해 활동 계획도 세웠다. 환경위는 △종단 및 사찰의 환경 현안에 관한 활동 총괄 △사회적 환경 이슈 및 사찰환경 분쟁에 관한 대응 및 자문 △불교 제도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환경 정책의 연구·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환경 이슈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화평 스님에게 제9기 환경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1700여 년 동안 가람이 유지되고, 산림이 잘 조성된 데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온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대에는 쓰레기, 공기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불교의 환경 보존 의식이 사회, 국가로 퍼져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교계가 환경보존 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연화원 창립 20년…불심으로 하나 된 축제 한마당

수어사랑 음악회 및 자비축제
가수 홍경민, 송우주 등 공연
점자 경전 · 장학금 전달 이어져



연화원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수화사랑 음악회에서는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와 해성 스님이 함께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다.

자비의 손짓이 천리만리 울려퍼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열어가길 발원하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이 자비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연화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20회 수어사랑 음악회 자비나눔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연화원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년을 함께해준 고마운 이들 한 명 한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심 하나로 뛰다보니 번듯한 시설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지만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하나 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앞당길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됐다. 공연은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와 해성 스님이 함께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다. 먼저 발달장애인 학부모와 해성 스님이 함께한 난타 공연에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흥겨운 박수가 쏟아졌다.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 및 마하연모회의 공연에는 아낌없는 응원이 이어졌다.

2부는 가수 홍경민이 무대에 오르며 막이 올랐다. 이 밖에도 불자가수 이소우, 연극배우 이정성, 불자가수 송우주, 국악인 남상일, 마하무용단, 수어사랑합창단 등의 공연으로 동참자들은 흥겨운 오후 시간을 보냈다.

이날 연화원은 광림사 청각장애인불자회, 시각장애인불자회, 서울시 농아농이협회, 지체장애인단체 등에 자비의 쌀 백미 3000kg를 전했다. 또 장애인 부모의 자녀 가운데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점자 불전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해성 스님은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에 점자를 통해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만든 〈불교성전〉 3편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음식 조리사 자격 취득자 24명 배출

사업단, 제13회 자격증 수여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3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갖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24명에게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수여했다.〈사진〉 이번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24명 가운데는 스님 7명과 재가자 17명이 포함됐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사찰음식의 전통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는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의 사찰음식 정규과정(초급·중급·고급 각 3개월 과정)과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전문자격을 도입,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최초 2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60명을 배출했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사찰음식 정규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배출된 전문조리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적극 제공해 전문조리사들이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